

財政收支의 經濟的 效果

金 斗 熙*

〈目 次〉

I. 序 言
II. 財政政策의 目的
III. 經費支出의 效果
IV. 租稅收入의 效果
V. 公債發行의 效果
VI. 租稅收入과 經費支出의 綜合的 效果
VII. 公債發行과 經費支出의 綜合的 效果

I. 序 言

1929年 美國 월街에서 시작된 世界恐慌과 이에 이은 沈滯의 慢性化는, 自由企業의 制度에 立脚한 經濟組織 즉 이른바 自由資本主義經濟體制에 의하여 經濟的 資源의 完全利用이 自動的으로 達成 維持되어 豐饒한 社會가 實現되리라는 期待를 完全히 霧散시켰으며, 여기에서 財政政策은 從來의 消極的 財政에서 積極的 財政인 피스칼 폴리시(fiscal policy)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 피스칼 폴리시는 「政府의 收支를 經濟安定을 위한 調整要因(balancing factor)으로서 利用하는」⁽¹⁾ 것을 意味하며, 그것은 처음에는 不況克服의 手段으로 登場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慢性化되고 深刻화된 不況의 克服이 當時에 있어서는 最大의 關心事였기 때문이다. 피스칼 폴리시는 本來의 가장 單純化된 形式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內容을 包含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現在의 物價水準下에서 만일 財貨·用役의 總供給(aggregate supply)을 總需要(aggregate demand)가 超過한다든가 또는 反對로 總需要가 潛在的 供給(potential supply)에 未達한다든가 하여 經濟에 不安定이 發生할 때에 그 不安定을 除去하기 위하여 政府의 收支를 利用한다. 즉 需要가 供給을 超過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의 傾向이 있을 때에는 增稅와 財政支出의 削減을 通하여 總需要를 減少시키

* 本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本論文은 1980學年度 文敎部 學術研究助成費의 支援를 받아 作成된 것임.

(1) J.A. Maxwell, *Fiscal Policy: Its Techniques and Institutional Setting*, 1955, p. iii.

고, 反對로 需要가 供給에 未達할 경우 즉 디플레이션과 過少雇傭의 경우에는 減稅와 支出 增加를 通하여 有效需要를 增大시킨다. 이러한 새로운 財政政策이 많은 國家에서 採擇되고 그것이 幅넓은 支持를 받게 되었는데, 그 理由의 하나는 그 政策이 基本的인 經濟的 自由에 立脚하여 個人主義的인 自由放任經濟의 缺陷을 修正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는 點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基本的인 經濟的 自由라는 것은 대략 生産方法과 生産物決定의 自由, 職業選擇의 自由 및 消費選擇의 自由 등을 意味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

이러한 意味의 새로운 積極的 財政政策의 內容으로서의 케인즈 以後 특히 第2次大戰後에 있어서의 所得分析의 發展에 立脚하여 個別的인 政策內容의 分析 및 評價를 行하는 동시에 政府가 行하는 다른 公共政策과의 關聯을 檢討하는 것이었다. 즉 政府支出의 增加, 減少에 있어서는 어떠한 支出項目을 對象으로 할 것인가라든가 또 增稅 또는 減稅에 있어서는 어떠한 稅種을 그 對象으로 選擇할 것인가라든가 하는 등의 問題를 檢討하는 同時에 貨幣·金融·價格·勞動 등에 관한 諸般政策과의 關聯이라든가 中央의 財政政策과 地方의 그것의 調整乃至는 協力的 方向같은 것을 分析 檢討하여 왔다. 「財政政策에 관하여, 그것이 近代世界에서 생각되는 限度內에서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특히 그의 『一般理論』——를 떠나서 이를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다. 實際로 그는 財政政策의 概念에 하나의 새로운 意味를 附與하고 또 政府의 財政活動에 하나의 새로운 觀點을 附與했던 것이다. 만일 財政政策이 올바르게 理解되고 大膽하게 實行될 것 같으면 自由로운 資本主義는 아직도 存續할 수 있다고 케인즈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마 대체로 사실일 것이다.」⁽³⁾라고 콜름(Colm)은 말하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現代의 資本主義國家들에 있어서의 主要한 政策目標의 하나가 完全雇傭의 達成 維持라는 點을 생각하면 케인즈 以後의 財政政策의 役割은 매우 擴大되었고 그 政策의 理論的 基礎는 대개 『一般理論』의 影響 밑에 있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즉 資本主義經濟에 있어서는 雇傭 및 所得水準은 有效需要——이것은 消費·投資·政府支出 및 輸出로 構成된다.——에 의하여 決定된다. 따라서 높은 水準의 雇傭이 達成되기 위해서는 그 水準에 있어서의 產出量에 충분히 對應할 만한 總需要額이 필요하다. 그런데 오늘날의 秩序에 있어서는 民間需要는 대체로 急激한 變動을 免하기 힘든 狀態에 있기 때문에 以上の 條件을 적어도 自動的으로 達成하게 될 것이라는 保障은 없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經濟의 메카니즘에서는 投資誘因은 매우 弱하여 投資가 完全雇傭下에서의 貯蓄에 未達하는 말하자면 投資의 不足이라는

(2) G. Colm, *Essays in Public Finance and Fiscal Policy*, 1935, pp.189~90.

(3) G. Colm, "Fiscal Policy", in *The New Economics*, 1948, p.450.

事態가 一般的이다. 그 結果 利用可能資源이 完全雇傭되지 못하는 낮은 水準에서 均衡이 達成되고 따라서 大量의 失業을 發生시킨다. 즉 現實 GNP가 可能 GNP에 未達하는 事態가 發生한다.

한편 戰時 또는 戰後같은 때에는 投資의 過剩이라든가 財政支出이나 消費支出의 過剩으로 因하여 總需要가 完全雇傭水準 達成에 필요한 그것을 超過하게 되고 이것은 結局 貨幣 國民所得水準만을 引上하여 物價의 昂騰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디플레이션갭이나 인플레이션갭을 메꾸기 위하여 總需要의 調整이 財政活動에 대하여 要求된다.

케인즈는 그의 『一般理論』에서 財政問題만을 分離하여 論議하지는 않았으나 그가 財政을 雇傭 및 所得에 影響을 미치기 위하여 計劃된 政策實現의 한 手段으로 보고 있는 것만을 틀림 없는 것 같다. 從來의 「財政」(public finance)이라는 用語 대신 「財政政策」(fiscal policy)이라는 用語가 使用되고 이것이 貯蓄에 대한 課稅의 作用이라든가 借入으로 調達되는 公共 投資支出의 影響에 言及한다든가 할 때 財政政策은 國家活動의 重要한 形態의 하나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II. 財政政策의 目的

財政의 主體인 政府는 自身の 存續 및 機能遂行에 필요한 物的 手段의 確保와 同時에 公共經濟의 主體로서 國民全體의 物的 手段의 確保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이 目的 達成을 위하여 政府는 經費를 支出하는 한편 經費의 調達을 위하여 收入을 徵收한다. 필요한 物的 手段의 確保는 곧 消費의 保障을 意味한다. 消費의 保障은 이를 量的 面에서의 保障과 質的 面에서의 保障의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量的인 面에서의 消費의 保障이라는 것은 消費水準의 最大化를 意味하고, 質的 面에서의 消費의 保障이라는 것은 必要에 適合한 消費의 實現을 意味한다. 그리고 消費의 保障은 生産에 의해서만 可能하며, 生産은 또 利用可能資源과 그 資源의 利用量 및 利用方法에 의하여 左右된다. 즉 消費의 量的 保障은 資源의 利用量 따라서 生産水準 또는 雇傭水準에 의하여 決定되고 消費의 質的 保障은 資源의 利用方法 따라서 生産物의 種類와 그 相對的 數量에 의하여 決定된다. 이것은 또 消費者選擇에 一致하는 資源配分이라고 表現해도 適當할 것이다.

生産이 量的으로 最大化되고 質적으로 消費者選擇에 一致할 때, 그 資源配分狀態를 칼도(Kaldor)나 히스(Hicks)가 말하는 「最適編成」(optimum organization)의 狀態라고 할 수 있고, 이 狀態에서 生産되는 產出量を 「理想的 產出量」(ideal output)이라고 할 수 있다. 理

想的인 產出量은 따라서 量的으로 最大이고 質的으로 最適인 產出量이며, 따라서 消費를 量的·質的 兩面에서 共히 保障해 줄 수 있는 產出量이라고 할 수 있다.

國民의 대부분이 強力히 要求하고 있는 財貨가 전혀 또는 거의 生産되지 않고 國民의 一部만이 要求하고 있는 財貨가 要求대로 生産된다든가 또는 政府가 필요로 하는 財貨가 生産되지 않고 民間이 필요로 하는 財貨만이 生産된다든가 하는 것은 質的인 面에서 消費者 選擇에 一致하는 資源配分이 아니라는 意味에서 最適編成狀態가 아니다. 또 不況期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遊休資源의 存在를 包含하는 不完全雇傭狀態 또한 量的인 面에서 資源의 利用이 最大化되지 못하고 있다는 意味에서 最適編成狀態가 아니다. 完全雇傭은 可能 GNP와 現實 GNP의 一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므로, 最適編成 또는 理想的 產出量이란 消費者選擇에 一致하도록 資源이 配分되는 同時에 現實 GNP의 水準이 可能 GNP水準에 到達된 狀態 또는 이 狀態에서의 各種 財貨의 產出量을 말한다. 이것은 GNP의 絶對的 水準에 관한 問題인 동시에 各種 財貨의 相對的 水準에 관한 問題이다. 絶對的 水準은 GNP의 水準이라고 할 수 있고, 相對的 水準은 GNP의 構成이라고 할 수 있다.

財政政策의 目的인 最適編成下에서의 資源配分은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量的 問題인 GNP水準의 最大化와 質的 問題인 消費者選擇에 一致하는 資源配分 즉 GNP의 構成이라는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두가지 目的과 所得分配의 關係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消費者選擇에 一致하는 資源配分은 消費者主權을 前提로 하고 생각할 수 있는 問題인데 消費者主權이 支配하는 社會에서의 資源配分은 「需要供給의 原則」에 의하여 行해진다. 그런데 需要供給의 原則에 의한 資源配分이 消費者選擇에 一致하는 資源配分이 되기 위해서는, 競爭이 制限되지 않을 뿐 아니라, 分配의 均等化가 實現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需要供給의 原則에 의한 資源配分이란, 生産되는 生産物의 種類 및 量이 各 生産物에 대한 需要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을 말하는데 需要라는 것은 單純한 要求 또는 필요가 아니고 購買力을 隨伴하는 要求이다. 아무리 어떤 財貨에 대한 要求가 强熱하다 하더라도 그 要求를 뒷받침하는 購買力이 이에 隨伴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은 需要가 되지 못하고, 따라서 그 財貨의 生産을 刺戟하지 못한다. 生産을 刺戟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財貨에 대한 單純한 要求가 아니고 購買力을 隨伴하는 要求인 것이다. 富裕層의 奢侈的 要求가 그대로 生産에 反映되면서도 貧困層의 緊迫한 要求가 生産에 反映되지 않는다는 것은 要求를 뒷받침하는 購買力의 有無에서 오는 것이다. 要求의 크기와 強度가 그대로 需要로 나타남으로써 要求에 比例하는, 즉 消費者選擇에 一致하는 資源配分이 行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의 要求가 그대로 需要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保有하는 購買力이 均等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購買力이 均等하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強力한 要求도 需要가 될 수 없는가 하면 一部層의 弱한 要求가 그대로 需要가 될 수 있기도 하다. 그런 意味에서 需要供給의 原則이 消費者選擇에 一致하는 資源配分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購買力의 分配가 均衡해야 한다. 그런데 購買力 保有狀態는 主로 所得의 分配狀態에 依存할 것이므로 質的인 消費者選擇에 一致하는 資源配分 즉 GNP의 構成面에서 본 最適編成 또는 理想的인 產出量은 均等한 分配가 前提되어야 한다.

한편 量的인 問題인 GNP의 水準을 可能 GNP의 水準까지 引上한다는 財政政策의 目的도 分配問題와 密接한 關聯을 갖고 있다. 均衡 GNP의 水準은 「有效需要의 原理」가 說明하는 바와 같이 總需要와 總供給에 의하여 決定되는데 總需要의 構成要素인 消費支出은 所得의 分配가 均等하면 할수록 크다. 즉 消費支出은 所得과 限界消費性向에 의하여 決定되는데 一社會의 限界消費性向은 分配가 均等하면 할수록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分配의 問題는 GNP의 水準의 問題와 關聯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分配의 均等의 問題는 財政政策의 質的 目的 및 量的 目的의 兩者와 關聯을 갖고 있다. 그러나 均等한 分配는 資源의 最適配分 또는 最適編成이라는 究局的 目的에 대하여 그 目的 達成을 위한 手段으로서의 意義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均等한 分配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生産面에서 GNP水準의 引上和 消費者選擇에 一致하는 GNP의 構成에 寄與할 뿐 아니라, 그것은 또 均等한 消費를 保障하며, 均等한 消費라는 것은 一社會에 있어서 바람직한 物的 福利狀態이기 때문이다. 케인즈도 「우리가 生活하고 있는 經濟社會의 큰 결함은 그것이 完全雇傭을 마련해 줄 수 없다는 것과, 富 및 所得을 멋대로, 그리고 또 不公平하게 分配한다는 것이다.」⁽⁴⁾라고 하며 우리 社會에서 除去되어야 할 缺陷으로 不完全雇傭과 所得 및 富의 不均等한 分配를 指摘하고 있다. 따라서 分配의 均等は 完全雇傭 즉 可能 GNP의 實現, 消費者選擇에 一致하는 資源配分 즉 GNP의 理想的인 構成과 더불어 財政政策의 目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財政政策은 以上과 같은 세가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政府가 그 收入과 支出을 手段으로 利用하는 經濟政策의 하나이다. 따라서 財政政策의 立案, 遂行에 있어서는 그 手段인 各種의 收入 및 支出이 以上과 같은 目的에 대하여 어떠한 效果를 가지고 또 어느 정도의 效果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重要的 問題가 된다. 즉 財政政策의 立案 및 遂行過程에서는 各種 收入 및 經費가 GNP의 水準, 所得의 分配 및 GNP의 構成에 어떠한 影響을

(4) J.M.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5, p. 372.

미치게 될 것인가를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III. 經費支出의 效果

政府經費는 이를 移轉的 經費와 非移轉的 經費로 分類할 수 있다. 지금 消費函數를 $C = a + cY_d$, 移轉的 經費를 T_r , 非移轉的 支出을 G 라고 할 것 같으면 $GNP(Y)$ 의 水準은 다음과 같이 決定된다.

$$Y = a + c(Y_d + T_r) + I + G + F. \quad (5)$$

여기서 $a + cY_d$ 는 물론 消費이고 Y_d 는 可處分所得이므로 $Y_d = Y - T_x$ (T_x 는 租稅)이다. 그리고 I 는 投資, G 는 政府의 非移轉的 經費支出, F 는 輸出이다.

위의 式은 다음과 같이 變形될 수 있다.

$$Y = a + c(Y - T_x + T_r) + I + G + F.$$

따라서 移轉的 經費支出의 增加나 非移轉的 經費支出의 增加는 모두 GNP 의 增加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政府의 經費支出은 그 收入面을 度外視할 것 같으면 移轉的, 非移轉的을 막론하고 擴張의 效果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一定量의 經費支出이 가져오는 效果의 크기에는 差異가 있다. 즉 兩經費의 乘數에는 差異가 있다.

지금 위의 式에서 GNP 를 求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Y = \frac{a - cT_x + cT_r + I + G + F}{1 - c}.$$

그리고 非移轉的 經費의 增加(ΔG)가 있을 것 같으면 GNP 의 增加(ΔY)는 $\frac{\Delta G}{1 - c}$ 가 된다. 따라서 政府의 非移轉的 經費의 乘數 $\frac{\Delta Y}{\Delta G}$ 는 $\frac{1}{1 - c}$ 이다.

한편 政府의 移轉的 經費의 增加(ΔT_r)가 있을 것 같으면 GNP 의 增加는 $\frac{c\Delta T_r}{1 - c}$ 이 된다. 따라서 移轉的 經費의 乘數 $\frac{\Delta Y}{\Delta T_r}$ 는 $\frac{c}{1 - c}$ 이다. 여기에서 移轉的 經費의 乘數는 非移轉的 經費의 그것보다 작고 따라서 擴張의 效果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以上에서는 利用可能資源이 一定하다는 假定 위에서 政府經費를 移轉的 經費와 非移轉的 經費로 分類하고 그 經費가 總需要에 미치는 效果 따라서 GNP 의 水準에 미치는 效果와 그 乘數를 檢討해 왔다. 그러나 政府의 經費支出은 利用可能한 資源의 利用量 즉 그 雇傭水準의 變更을 통해서만 實質 GNP (및 物價水準)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利用可能한 資源 自體의 種類 및 量의 變更을 통해서도 이에 影響을 미친다. 그리고 政府經費의 支出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收入面을 考慮 밖에 둔다면) 擴張의 效果를 가지는 것은 틀림 없으나

(5) John Lindauer, *Macroeconomics*, 2nd ed., 1971, p.158.

各 個別의 經費는 서로 總需要에 미치는 影響에도 差異가 있고, 또 利用可能한 資源의 供給에 미치는 影響에도 差異가 있다.

첫째로, 社會保障制度가 發達한 國家에서 比較的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는 老年年金이나 失業者救濟費 또는 貧民救濟費 같은 것은 總勞動供給量을 減少시키는 傾向이 있을 것이다. 救護對象者들의 勞動意慾이 減退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教育費의 支出은 教育期間에 있어서는 勞動供給의 減少를 招來할 것이지만 長期的으로는 勞動의 生産力의 增加를 通하여 總產出量을 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保健厚生費의 支出도 마찬가지로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 教育 및 保健厚生은 勞動의 能率의 引上, 勞動의 質의 向上을 가져온다는 點에서는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農地改良, 砂防工事, 地下資源의 調査, 原子力研究 등 資源의 調査, 研究, 開發 등에 대한 經費支出 역시 長期的으로는 生産의 能率을 引上하여 GNP의 增加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利用可能資源自體를 增加시킴으로써 實質的 GNP의 增加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로, 政府經費의 支出은 消費와 貯蓄의 變動을 惹起하여 資本蓄積率을 變更시키고, 나아가서는 資本蓄積量, 따라서 또 總生産도 變動시킨다. 總產出量은 利用可能한 資源의 種類와 量에 의하여 左右되므로 資本施設의 保有量은 當然히 總產出量을 左右할 것이다. 이를테면 完全雇傭下에서는 年老者에 대한 救濟費支出은 (특히 累進率이 높은 所得稅에 의하여 調達될 때에는) 全般的인 貯蓄性向의 引下를, 따라서 또 投資의 減少를 招來하여 결국 經濟의 成長을 沮止 또는 抑制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不完全雇傭下에서는 이러한 支出은 直接的으로는 有效需要의 增加를 通하여 그리고 間接적으로는 所得分配의 均等化에서 오는 消費의 增加를 通하여 GNP의 增加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로, 道路·公營物建造 등에 대한 經費支出은 一般的으로 有效需要의 增加를 가져올 것이므로 不完全雇傭下에서는 實質 GNP의 增加를, 그리고 完全雇傭下에서는 貨幣 GNP의 增加 즉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그러나 經費가 어떠한 收入에 의하여 調達되느냐에 따라 그 效果의 程度에는 差異가 있다. 이 點에 관해서는 뒤에 다시 檢討하기로 한다.

1. 所得分配에 대한 經費支出의 效果

經費의 支出은 GNP의 水準 즉 產出量에 대해서 뿐 아니라 所得分配에 대해서도 影響을 미친다. 즉 所得再分配의 效果를 가진다.

經費支出의 所得再分配效果는 이를 非移轉的 經費의 그것과 移轉的 經費의 그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移轉的 經費支出의 效果를 볼 것 같으면 移轉的 經費 이를테면 救

濟費 같은 것이 支出될 때에는 이것을 받은 個人的 所得이 그만큼 增加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한편 富裕層 즉 納稅者層에 있어서는 同額의 所得이 減少한다. 따라서 國民經濟內에서 所得이 再分配된다. 이러한 再分配效果는 移轉의 經費가 租稅에 의하여 調達될 때 뿐 아니라 貨幣政策的 收入 즉 新規貨幣의 發行에 의한 收入, 또는 中央銀行이 引受하는 公債收入에 의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貨幣의 增發 또는 中央銀行의 公債引受는 完全雇傭下에서는 인플레이션을 誘發하여 一般의 實質所得을 低落시킬 것이고, 또 不完全雇傭下에서는 移轉의 經費支出의 對象이 되는 貧困層 以外の 所得層의 所得을 減少시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 經費支出의 對象의 所得增加는 틀림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移轉의 經費支出이라 하더라도 公債의 利子支給은 이러한 再分配效果를 거의 가지지 않는다. 利子の 取得者와 納稅者가 모두 公債의 所有者 自身들인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移轉의 經費支出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개의 경우 累進稅에 의한 調達로 低額所得層에 支給하는 것이므로, 再分配效果는 보통 均等化의 方向을 가진다.

다음에 非移轉의 經費支出이 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移轉의 經費支出의 그것에 比하여 작다고 할 수 있다. 政府의 非移轉의 經費支出은 完全雇傭下에서는 民間部門에 雇傭된 物的·人的 資源 또는 財貨를 政府部門으로 導入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政府의 各種 資源에 대한 支出이 民間의 그것에 대한 支出과 반드시 一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資源供給者의 所得은 政府의 經費支出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대개 그 經費가 租稅에 의하여 調達될 것이고 또 租稅에는 대개 累進率이 適用될 것이므로 所得은 均等化의 方向으로 再分配될 것이다. 그리고 不完全雇傭下에서는 政府의 非移轉의 經費支出은 失業者와 遊休資源을 生産過程에 끌어들이기므로 GNP의 增加를 가져오는 同時에 勞動者와 資源供給者의 所得을 增加시켜 所得의 再分配를 가져온다. 이 경우에는 租稅보다도 公債發行 또는 新規貨幣發行에 의한 것이므로 富裕層의 所得減少는 招來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2. 資源分配에 대한 經費支出의 效果

資源分配 즉 GNP의 構成에 대한 經費支出의 效果를 보기 위해서는 經費를 ① 一般財貨에 대한 經費, ② 個人的 利益보다도 社會的 利益을 더 많이 가져오는 財貨에 대한 經費, ③ 民間企業의 生産量을 統制하기 위한 經費 및 ④ 一定의 移轉의 經費의 네가지로 分類하는 것이 便利할 것이다. 그리고 또 以上の 各 經費의 效果를 完全雇傭과 不完全雇傭의 경우로 나누어 分析할 필요가 있다. 同一한 經費의 支出이라 하더라도 完全雇傭下에서의 不完全雇傭下에서는 그 效果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1) 完全雇傭의 경우

첫째로, 一般財貨의 生産을 위한 經費支出의 效果. 여기서 一般財貨라고 하는 것은 民間企業에서도 生産되고 있는 財貨, 즉 政府가 生産할 때에는 民間企業과 競爭的 地位에 서게 되는 財貨를 말한다. 政府가 이러한 財貨를 生産할 때에 그 經費支出이 資源配分에 미치는 效果는 政府의 官業運營 方針에 의하여 左右된다. 만일 이러한 企業運營에 있어서 價格, 生産量, 서비스의 質 및 投資의 種類와 量에 관한 政策이 民間企業에 있어서의 방식과 같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利潤의 一部가 民間人에 歸屬하지 않고 政府의 그 企業活動을 擴張하기 위하여 利用된다는 點이 다를 뿐, 資源配分에 관해서는 民間이 全的으로 擔當할 때와 別差異가 없다. 그러나 政府企業의 政策과 民間企業의 計劃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政府는 公共的 見地에서 營利의 原則을 떠나서도 企業을 運營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政府가 需要를 刺戟하기 위하여 價格을 引下할 것 같으면 그 財貨 또는 用役의 生産이 增加될 수 있다. 그러나 政府企業의 非能率의 運營 또는 政治的 壓力 때문에 價格의 引下가 곤란할 때도 없지 않다. 또 政府는 資本의 不足 또는 資本의 懷妊期間이 長期에 걸치기 때문에 民間企業으로서는 投資가 不可能 또는 곤란한 基幹產業에 投資함으로써 그 部門으로 資源을 轉用할 수 있고, 나가서는 國民經濟全體의 資源을 再配分할 수도 있다.

둘째로, 社會的 利益이 큰 財貨 또는 用役의 生産을 위한 經費支出의 效果. 社會的 利益이 큰 財貨 또는 用役의 生産이라는 것은, 國民의 個個人을 위해서 보다는 社會 全體를 위하여 필요한 財貨 또는 用役, 이를테면 治安·國防活動 또는 義務教育같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財貨 또는 用役은 國民 個個人에 대한 賣却이 不可能 또는 곤란하기 때문에 民間企業에 의해서는 生産이 不可能하거나 곤란하다. 이러한 財貨 또는 用役을 위하여 政府가 經費를 支出할 것 같으면 資源은 一般消費財 또는 資本財의 生産部門에서 이 部門으로 轉用될 것이고 따라서 GNP의 構成도 당연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經費支出은 以上과 같은 直接的 效果 뿐 아니라, 間接的인 效果를 資源配分에 대하여 미친다. 이를테면 教育費의 支出은 資源을 教育用役의 生産部門으로 配分하여 GNP에서의 教育用役의 比率를 增加시키는 한편 教育에 의한 生産能率의 引上으로 生産物의 種類의 變動을 가져온 것이다. 따라서 資源配分 및 GNP의 構成의 變動을 招來한다. 또 教育은 國民의 要求狀態, 따라서 各種 財貨에 대한 需要의 變動을 招來하여 資源의 配分狀態를 變化시킨다. 그리고 道路補修를 위한 經費支出같은 것도 直接的인 資源의 再配分 뿐 아니라, 輸送業의 發達을 可能하게 하여 이 部門에 대한 資源의 配分을 增加시킨다.

세째로, 民間企業의 生産量 統制를 위한 經費支出의 效果. 이러한 目的을 가진 經費에는 移轉的 經費의 一部와 非移轉的 經費의 一部가 包含된다. 企業에 대한 補助金은 前者에 속하고 官業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經費支出은 後者에 속한다. 이러한 經費의 支出은 政府가 公益性을 띠우고 있는 財貨의 民間生産量을 調節하기 위하여 補助金을 支出할 때라든가 또는 民間企業의 競爭 때문에 生産過剩의 憂慮가 있는 事業을 政府가 統制 또는 直接 擔當할 때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經費支出의 效果 즉 特定 財貨 또는 用役의 生産量의 變動이라는 것은 政府의 經濟政策이 達成하러 하는 政策目的 自體이다.

네째로, 一定的 移轉的 經費支出의 效果. 여기서 一定的 移轉的 經費라는 것은 위에서 본 生産量 統制目的을 가진 移轉的 經費, 즉 補助金 같은 것을 除外한 나머지 것을 말한다. 救濟費, 年金, 公債利子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經費支出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은 所得再分配의 效果를 가질 뿐, 原則적으로 直接的인 資源再分配의 效果는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實質 GNP의 構成의 變化도 가져오지 않는다. 그러나 間接적으로는 資源配分 및 GNP의 構成을 變化시킨다. 所得의 再分配는 高額所得層으로부터 低額所得層으로의 再分配이며, 兩所得層이 필요로 하는 財貨의 種類와 量이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完全雇傭下에서는 所得의 再分配에 의한 以上과 같은 均等化는 國民經濟 全體의 貯蓄性向을 引下하여 投資率을 低落시킴으로써 역시 資源配分狀態를 變化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公債利子の 支給은 救濟費나 年金과는 正反對의 效果를 가져오게 된다. 왜냐하면 公債의 保有者는 대개 富裕層일 것이기 때문이다.

(2) 不完全雇傭의 경우

不完全雇傭下에서는 非移轉的 經費의 支出도 民間에서 生産에 利用되고 있는 資源을 政府部門으로 轉換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만 失業者 및 遊休資源의 雇傭을 招來할 뿐이다. 따라서 GNP의 構成에는, 從前에 民間企業에서 生産하던 財貨 및 用役 外에 政府部門에서 새로 生産하는 財貨 및 用役이 增加하는 外에는 아무런 變動도 일어나지 않는다.

移轉的 經費支出은 完全雇傭下에서와 마찬가지로 直接的으로는 所得再分配의 效果 밖에는 가져오지 않지만, 間接적으로는 所得의 均等化에서 오는 貯蓄性向의 引下 즉 消費性向의 引上을 通하여 國民所得의 增加를 가져오고 또 GNP의 構成에서는 低額所得層이 要求하는 財貨의 比率이 增大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公債利子の 支給은 대체로 이와 反對의 效果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IV. 租稅收入의 效果

租稅는 그 支出을 一旦 度外視할 것 같으면 購買力의 흐름에서의 政府에 의한 一部 購買力의 吸收이다. 그것은 分配所得에서 消費 또는 貯蓄으로 處分될 貨幣를 減少시킴으로써 可處分所得을 減少시킨다. 租稅는 이와 같이 消費와 貯蓄을 減少시키는 同時에 또 消費와 貯蓄間의 比率를 變動시킨다. 租稅의 大部分은 (특히 高所得水準에서) 貯蓄되었을 資金에서 負擔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可處分所得에 대한 消費比率 즉 可處分所得에 대한 消費性向을 引上하기 쉽다. 또 租稅가 總投資의 減少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거의 確實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投資에 利用可能한 資金이 減少하고, 또 한편으로는 消費의 減少로 말미암아 投資의 誘因이 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租稅가 收縮的 效果를 가진다는 것은 모든 租稅에 共通된 點이지만, 各種 租稅는 저각기 그 效果의 크기나 그 樣式에 있어서 서로 약간의 差異가 있다.

먼저 個人所得稅는 그것이 賦課되는 個人에게서 直接 購買力을 吸收한다. 이것은 所得이 分配되기 前에 吸收하는 경우도 있고, 分配된 後에 吸收하는 경우도 있다. 法人稅는 企業에서 直接 購買力을 吸收한다. 만일 法人稅가 賦課될 경우 企業이 이로 말미암아 株主에 대한 配當을 減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때에는 그 效果는 個人所得稅가 株主에게 賦課된 것과 同一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法人稅가 剩餘에 賦課됨으로써 剩餘의 增加를 沮害할 것 같으면 貯蓄이 減少하여 企業의 投資의 減少를 招來할 것이다. 또 만일 租稅가 價格引上으로 前轉될 것 같으면 그 效果는 다음에 보게 될 消費稅와 같아질 것이다.

消費稅는 原則적으로 消費者에게로 前轉한다. 따라서 企業이 納付한 消費稅는 그 商品의 價格引上을 通하여 그 商品의 購買者의 所得의 一部를 吸收한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消費稅가 轉嫁되지 않을 때에는 租稅는 그 稅額만큼 企業家의 所得을 減少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會社의 경우 配當을 租稅와 관계 없이 課稅前의 水準으로 維持하려고 하여 企業의 剩餘를 減少시킬 것이다. 그리고 만일 消費稅의 賦課가 生産要素의 價格을 引下할 것 같으면 그 效果는 個人所得稅와 같아진다.

財産稅는 家屋의 所有者에 賦課되는 것이며 해마다 所得稅와 꼭 같은 樣式으로 徵收된다. 그러나 稅負擔의 算定基礎는 다를 수 있다.

租稅의 徵收는 以上과 같이 可處分所得을 減少시키는 直接的인 購買力 效果 外에도 各種 行爲의 誘因에 影響을 미침으로써 行動의 變動을 招來한다. 이를테면 個人所得稅는 個人의

勞動意欲, 따라서 勞動供給을 全般的으로 또는 個別的으로 變動케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企業의 發展 또는 擴張에 대한 意欲을 減少시킬 수도 있고, 또 특히 危險이 따르는 冒險의 活動을 萎縮시키기 쉽다. 法人稅 역시 마찬가지로 投資誘因에 影響을 미치고, 企業의 合法的 活動의 樣式이라든가 金融의 方法이라든가, 또는 企業의 活動水準과 同時에 그 活動의 性格도 變更시킬 것이다. 다음에 消費稅의 徵收는 相對的인 消費樣式的 變動을 惹起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財貨가 消費稅 賦課로 말미암아 다른 財貨에 比하여 相對的으로 비싸지기 때문이다. 生産財에 消費稅 또는 物品稅가 賦課될 것 같으면 生産技術의 選擇 즉 生産方法의 變動이 招來되기 쉽다. 物品稅가 賦課된 生産財는 相對的으로 그 價格이 上昇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財産稅도 經濟活動에 미치는 影響面에서는 消費稅와 거의 비슷하다. 그 理由는 課稅對象, 이를테면 住宅에 대한 購買力의 使用을, 課稅前에 있어서보다도 相對的으로 不利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以上과 같이 各種 經濟活動에 미치는 租稅의 效果의 正確한 性質 및 그 정도는 斷定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V. 公債發行의 效果

公債의 發行도 租稅의 徵收와 마찬가지로 政府에 의한 購買力의 吸收이다. 그러나 租稅收入은 分配所得의 흐름에서 그 一部를 吸收한다는 意味에서 徵稅 自體는 總需要를 減少시키는 이른바 收縮의 效果를 가져오지만, 公債의 發行은 一律的으로 어떠한 效果를 가져온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公債의 發行이 總需要 따라서 GNP의 水準에 미치는 效果는 公債收入의 源泉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公債收入의 源泉이 民間 個人 또는 企業일 경우 즉 公債를 個人 또는 企業이 購買할 경우에는 個人的 消費樣式이나 貯蓄의 構成에 若干의 變化는 있을 수 있지만 總需要의 變動은 거의 가져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戰時에 있어서처럼 支出의 削減, 公債의 購入이 強要되지 않는 限 公債를 購入하기 위하여 消費支出을 削減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個人에 의한 公債의 購入은 現在 또는 過去의 貯蓄을 他用途로부터 公債購入으로 轉換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貯蓄의 他用途라는 것은 企業의 擴張, 現金의 保藏 및 他證券의 購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公債가 發行될 것 같으면 公債는 企業擴張에 使用되었을 貯蓄 또는 保藏現金 또는 他證券購入에 使用되었을 貯蓄으로 購入되는 세가지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企業擴張에 使用될 資金이나 保藏現金이 公債購入에 使用되기 위해서는 그 公債에 어떤 特別한 利益이 따른다거나 또는 公債의 賣

却이 市場利率을 引上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可能性이 큰 方法은 他證券購入으로부터 公債購入으로의 轉換이다. 그리고 이러한 轉換은 證券價格을 引上하고 利率을 引上하는 傾向을 갖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위에서 본 企業擴張資金이나 保藏現金을 公債購入으로 誘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利率의 上昇은 投資의 減少를 가져오는 한편, 現存證券의 價格低落을 통하여 個人들의 金融資產의 總價値를 減少시켜 限界消費性向을 引下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消費의 減少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公債가 民間 個人 또는 企業에 賣却될 때에는 消費 또는 企業投資에 대한 直接的 效果는 거의 없지만 間接的으로는 收縮的 效果도 가질 수 있다.

公債는 銀行 以外的 金融機關에 의하여 그 많은 部分이 買入되고 있다. 이러한 金融機關이래면 保險會社는 公債를 買入할 때에는 그 一部를 保有現金으로 할 때도 있으나 他證券買入을 公債買入으로 轉換하는 方法으로 할 때가 더 많다. 따라서 이러한 金融機關의 公債買入은 證券價格의 引下와 利率의 引上을 가져오기 쉽다. 그리고 金融機關의 公債保有量의 增加는 企業에 대한 直接貸付에 利用할 수 있는 資金, 證券購入에 利用할 수 있는 資金, 또는 固定資本에 投下할 資金 등을 減少시킬 것이고 이것은 若干의 收縮的 效果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市中銀行에 의한 公債買入의 效果를 살펴보기로 한다. 市中銀行組織은 其他의 金融機關들과는 달리 購買力을 創造할 수 있다. 즉 市中銀行組織에 의한 信用創造가 그것이다. 市中銀行組織에 過剩準備金(excess reserves)이 있을 때에는 그 過剩準備金의 몇 배 $\left(\frac{1-R}{R}\right)$ 배, R 은 支給準備率)에 該當하는 額까지 貸出을 增加시킬 수 있다. 그리고 銀行에 의한 貸付額이 借用者의 計定에 記入되는 過程에 의하여 市中銀行에 의한 信用創造가 可能해진다. 이와 같이 過剩準備金이 있을 때 市中銀行은 그 몇 배에 該當하는 購買力을 創造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많은 量의 公債를 購入할 수 있다. 그리고 公債를 買入하는 購買力은 移轉이 아니고 創造라는 意味에서 市中銀行에 의한 公債買入에 收縮的 效果는 전혀 發生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市中銀行에 過剩準備金이 없을 것 같으면 公債를 買入하기 위해서는 貸付를 削減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 경우에 그 效果는 앞서 본 他金融機關에 의한 公債買入의 그것과 같다.

끝으로 中央銀行에 의한 公債買入을 볼 것 같으면 이 경우에는 買入額에 該當하는 購買力이 中央銀行에 의하여 創造된다. 公債收入은 政府의 預金計定에 記入되고 이 計定에서 政府가 預金を 引出하여 他人에게 支給하고 그것이 受取人에 의하여 自身の 銀行에 預金되면 市中銀行의 預金總額은 그만큼 增加한다. 따라서 政府가 支出하는 購買力은 다른 貸付

에 利用할 수 있는 資金의 減少없이 創造된다.

뿐만 아니라 中央銀行의 公債引受는 또 市中銀行의 支給準備金도 增加시킨다. 政府가 公債의 賣却으로 새로 創造된 預金에 대하여 發行한 手票의 取得者가 그것을 自身の 去來銀行에 預置할 것 같으면 결국 市中銀行의 支給準備金이 그만큼 增加된다. 따라서 市中銀行의 貸出能力은 增加하고 銀行이 이에 따라 實際로 貸出을 增加시킬 것 같으면 總需要는 增加하여 政府의 支出과는 關係없이 公債發行 自體는 擴張的 效果를 가진다.

VI. 租稅收入과 經費支出의 綜合的 效果

지금까지 政府經費의 支出과 政府收入의 徵收에 관하여 經費의 效果와 收入의 效果를 獨立的으로 考察해 왔는데 收入은 本來 支出을 위한 것이고 支出은 또 收入에 의하여 可能한 것일 뿐 아니라 收入과 支出은 政府와 民間經濟間의 貨幣의 흐름이라는 意味에서 獨立的인 考察 外에 綜合的인 考察이 필요하다. 또 이미 본 바와 같이 收入과 支出의 效果는 대체로 相互 相殺的인 것 하지만 그 兩效果가 언제나 完全히 相殺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綜合的인 考察은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은 均衡豫算의 執行과 超均衡豫算의 執行의 두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均衡豫算의 경우만을 考察하기로 한다. 그리고 均衡豫算의 執行이 國民經濟의 機能에 미치는 效果를 所得의 分配에 대한 效果, 資源分配에 대한 效果 및 GNP의 水準에 대한 效果의 셋으로 나누어 考察하고자 한다.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의 支出은 所得의 分配 즉 購買力의 分配에 대하여 여러가지 影響을 미친다. 첫째로, 政府가 所得稅收入으로 政府機能遂行 이를테면 教育에 필요한 經費를 調達할 때에는 政府가 提供하는 用役에 대해서는 高額所得層이 低額所得層에 比하여 더 많은 租稅를 負擔하게 된다. 즉 所得分配는 均等化된다. 만일 그 用役이 民間企業에 의하여 生産되어 國民에게 販賣된다고 할 것 같으면, 高額所得層은 政府가 生産할 때보다 훨씬 적게 支出하게 되고 그 結果 所得分配는 보다 不均等해진다. 또 만일 그 用役이 生産되지 않고 그 資源으로 다른 財貨가 生産되어 國民에게 賣却될 것 같으면 高額所得層은 GNP의 더 많은 比率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역시 所得은 富裕層에 有利하게 分配될 것이다. 따라서 租稅收入에 의한 政府經費支出의 綜合的 效果는 實質所得이 보다 均等하게 再分配된다는 것이다. 財貨나 用役에서 오는 利益이 個人에게 個別的으로 歸屬하지 않고 全體로서의 社會에 歸屬할 때에 그것을 公共財(public good)라고 부른다면 이러한 公共財 이를테면 治安用

役, 國防用役은 完全히 恣意的인 基準에 의해서 밖에는 個個人에게 配當될 수 없지만 現實的으로는 低額所得層이 받는 利益에 대하여 支給하는 代價는 高額所得層에 比하여 훨씬 적다. 단일 이것을 政府에서 擔當하지 않고 民間에서 擔當한다든가 또는 民間이 그 資源을 他用途에 利用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高額所得層은 負擔에 比하여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利益을 얻을 것이다. 즉 高額所得層의 實質所得은 지금보다도 훨씬 增加할 것이다. 이에 反하여 低額所得層의 實質所得은 지금보다도 훨씬 減少할 것은 물론이다.

둘째로, 老年年金이라든가 救濟費支出은 一般的으로 高額所得層이 主로 負擔하는 租稅로 調達되고 따라서 貨幣所得 즉 購買力을 均等化의 方向으로 再分配한다.

다음에 셋째로, 政府에 의한 生産活動은 要素所得의 水準을 平準化하는 傾向이 있다. 政府機構內의 高級公務員의 俸給은 民間企業의 같은 정도의 幹部에 대한 俸給보다 훨씬 적은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는 事實이나 政府가 生産을 할 때에는 利潤이 支給될 필요가 없다는 事實은 政府가 民間의 生産活動을 引受한다든가 또는 政府의 活動分野를 擴張한다든가 할 때에는 生産要素間의 所得의 隔差가 縮少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를테면 高速道路가 民間의 道路會社에 의하여 運營된다고 할 것 같으면 最高幹部들의 俸給은 그것을 政府가 運營할 때 그 管理責任公務員이 받는 俸給보다 훨씬 많을 뿐 아니라 相當한 額의 利潤이 少數의 富裕한 株主에게 配當으로 支給된다. 따라서 政府가 運營할 때에는 要素所得의 平準化를 招來하게 된다.

以上과 같은 所得階層間의 있어서의 實質所得의 分配에 대한 一般的 影響 外에, 租稅에 의한 經費調達は 所得階層內에서의 個個人的 相對的 所得分配狀態를 變更시키기도 한다.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이 資源의 配分 즉 GNP의 構成에 대해서 미치는 影響은 매우 크다.

첫째로,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은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各種 生産要素의 相對的 供給量에 影響을 미친다. 累進率이 높은 所得稅는 報酬가 많은 部門으로 勞動의 流入을 어느 정도 抑制하고 比較的 報酬가 낮은 分野로의 供給을 誘引할 수가 있다. 報酬의 多寡가 犧牲·危險·熟練 등에 比例할 때에는 이것은 充分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한편 教育에 대한 經費支出은 訓練된 熟練勞動의 供給을 增加시키고 不熟練勞動의 供給을 減少시킨다. 또 資源保存을 위한 支出은 自然資源의 現在의 供給을 減少시키지만 長期的으로 볼 때 利用可能한 資源의 量을 增加시킬 것이다. 投機性 있는 事業活動에 대한 罰課金の 性格을 띄고 있는 租稅는 그 分野에 있어서 事業에 着手하고자 하는 사람의 數를 減少시킬 것이다. 以上과 같은 生産要素供給의 修正은 生産要素의 價格에 影響을 미치고 나아가서

各種 商品의 相對的인 產出量에도 影響을 미칠 것이다.

둘째로, 特定商品에 대한 租稅는 그 財貨의 購買를 減少시키고 따라서 또 그 產出量을 減少시키기는 傾向이 있다. 代表的인 例로는 特定商品에 대한 消費稅賦課가 그 商品의 消費를 他商品에 比하여 不利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抑制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課稅되지 않은 다른 財貨들의 產出量이 實際로 增加할 것이나 또는 減少할 것이나 하는 것은 물론 課稅된 商品과 非課稅된 商品의 相對的 需要의 彈力性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세째로, 租稅에 의한 經費支出은 消費와 貯蓄間의 比率, 따라서 또 (完全雇傭을 假定할 것 같으면) 消費財와 資本財生産의 比率의 變動을 가져온다. 大개 租稅는 貯蓄에서 徵收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租稅는 GNP에 있어서의 民間貯蓄의 比率를 틀림없이 引下시킨다. 累進的인 個人所得稅, 法人所得稅 그리고 財産稅같은 것은 그 典型的인 것들이다. 그러나 具體的으로 어느 정도의 效果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租稅의 種類, 租稅에 대한 納稅者의 態度 그리고 政府經費의 收得者에 의한 貨幣의 支出樣式 등에 依存한다.

네째로, 租稅의 購買力效果는 消費者의 消費樣式의 變化를 가져올 것이다. 各財貨의 所得彈力性이 서로 다를 것이기 때문에 限界購買商品의 消費는 특히 削減될 것이다. 租稅收入에 의한 移轉의 經費의 支出이 가져오는 全般的인 所得의 再分配는 必然的으로 消費樣式의 變化를 가져오게 된다. 즉 高額所得層이 主로 行하는 奢侈品의 消費를 減少시키고 反對로 低額所得層의 必需品의 消費를 增加시킨다. 이러한 事態는 當然히 奢侈品의 生産의 減少와 必需品의 生産의 增加를 招來하여 GNP의 構成을 變化시킨다.

다섯째로, 政府의 財貨 또는 用役의 生産은 그와 代替關係에 있는 財貨 또는 用役의 生産을 減少시키는 反面 그와 補完關係에 있는 財貨 또는 用役의 生産을 增加시킨다. 高速道路의 開通이 鐵道用役에 대한 需要 및 그 生産을 減少시키는 한편 石油類에 대한 需要 및 그 生産을 增加시키는 것이 바로 그런 事例이다. 이것이 GNP의 構成의 變化를 招來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끝으로 가장 重要한 것으로 政府의 公共財生産은 그 財貨의 產出量을 增加시키는 한편 民間에서 生産되는 其他 財貨의 生産量을 減少시킬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公共財는 民間企業에 의해서는 전혀 生産되지 않거나 또는 適切하게 生産되지 못하기 때문에 政府에 의해서 生産되며 따라서 政府가 生産할 것 같으면 그 生産은 相對的으로 增加하고 民間의 其他의 財貨의 生産은 相對的으로 減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은 國防費가 租稅로 調達되는 경우에 典型的으로 볼 수 있는 效果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GNP에서 차지하는 民需財의 比率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完全雇傭이 維持되고 있을 때에는 政府의 公

共財生産活動의 增大는 民間生産의 減少를 通해서만 可能하다. 資源이 民間部門에서 政府部門으로 轉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은 또 實質 GNP 및 貨幣 GNP의 水準 즉 生産水準 및 價格水準에 影響을 미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實質 GNP의 水準은 利用可能한 資源의 量과 質에 左右되는 同時에 利用可能資源의 雇傭水準에 左右된다. 그리고 雇傭水準은 消費, 投資, 政府支出 및 輸出로 構成되어 있는 總支出에 左右된다. 이 總支出이 完全雇傭下에서의 GNP 즉 可能 GNP에 未達할 때에는 失業이 發生하고, 그것을 超過할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進行된다. 以上과 같이 GNP(實質 및 貨幣 GNP)의 水準을 決定하는 過程에서 政府의 經費支出과 租稅收入은 두가지 經路를 밟아서 GNP의 水準에 影響을 미친다. 하나는 生産要素의 供給을 變動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總支出의 水準을 變動시키는 것이다.

이미指摘한 바와 같이 生産要素의 供給은 政府收入과 支出의 兩者에 의해서 變動한다. 이를테면 教育費支出은 技能과 訓練의 增大를 通하여 一定量의 勞動에서 生産할 수 있는 產出量 즉 勞動의 生産性を 引上하게 될 것이다. 租稅는 勞動의 供給을 減少시키기 쉽고 또 管理의 技術과 能率 즉 生産성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利潤에 대한 지나친 課稅는 能率의 減退를 招來할 可能性이 있고 따라서 產出量의 減少를 招來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變動은 一定의 雇傭水準에서 實現할 수 있는 總產出量의 減少를 가져온다.

租稅와 經費는 貯蓄·消費의 比率의 變更를 通하여 產出量의 限度에 影響을 미친다. 完全雇傭下에서 產出量의 最大限度은 當年度에 있어서 消費財產出量에 대한 資本財產出量의 比率이 떨어질 것 같으면 未來의 年度에 있어서 떨어질 것이다. 租稅는 資本財의 比率을 引下하기 쉽다.

그러나 雇傭水準 즉 生産要素가 實際로 利用되는 量에 대한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의 效果가 훨씬 더 重要하다. 租稅와 經費의 雇傭水準 따라서 GNP에 대한 效果는 總支出 즉 總需要에 대한 影響을 通하여 나타난다. 總支出은 雇傭水準의 直接的인 決定要因이기 때문이다. 總支出의 增加는 不完全雇傭下에서는 實質 GNP와 貨幣 GNP의 增加를 가져오고 完全雇傭이 到達된 後에는 貨幣 GNP의 增加만을 가져 온다. 反對로 總支出의 減少는 인플레이션期를 除外하고는 實質 GNP와 貨幣 GNP의 減少를 가져오고 인플레이션期에는 인플레이션의 壓力을 減少시킬 뿐이다. 그런데 總支出은 消費·投資·政府支出 및 輸出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政府支出의 增加가 民間支出, 즉 消費·投資 및 輸出의 同額의 減少에 의하여 相殺되지 않는 限 總支出의 增加를 당연히 가져올 것이고, 反對로 政府支出의 減少는 民間支出에 의하여 相殺되지 않는 限 總支出의 減少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政府支出이 增

加하던 GNP의水準은 上昇하고, 政府支出이 減少하면 GNP水準은 低落한다. 이와 같이 政府支出은 그 自體로서는 擴張的이고 이에 대하여 租稅는 收縮的이다. 그러나 政府支出의 擴張의 效果와 租稅의 收縮의 效果는 반드시 서로 完全히 相殺하는 것이 아니다. 租稅額과 經費額이 同額일 때에 所得의 흐름에서 政府가 吸收하는 額이 政府가 所得의 흐름에 放出하는 額과 同額인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政府의 吸收額과 放出額이 같다고 해서 支出總額에 變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租稅에 의한 政府支出의 增加가 있을 때에 반드시 그와 同額의 民間支出의 減少가 따른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政府支出의 增加가 民間支出의 同額의 減少를 가져오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局限된다. 즉 租稅가 消費에 支出되었을 資金에서 吸收되었다든가 또는 貯蓄에서 吸收된 租稅와 同額의 投資의 減少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總支出에 대한 正確한 效果는 이와 같이 消費·貯蓄의 比率에 대한 全般的 效果 및 租稅에 의한 支出이 投資에 미치는 效果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이 點을 좀 더 檢討해 보기로 한다.

먼저 消費·貯蓄의 比率에 대한 效果를 볼 것 같으면, 대개 租稅에 의한 經費支出은 消費에 支出되는 所得의 比率 즉 消費性向을 增加시킴으로써 消費·貯蓄의 比率를 變更시킨다. 이와 같이 消費性向이 增加하는 것은 一部는 所得分配의 均等化 때문이고, 一部는 一般的으로 租稅가 貯蓄에서 納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比率에 대한 正確한 效果는 租稅의 種類, 經費支出의 目的, 經費가 各所得層에 分配되는 樣式, 그리고 納稅者 및 支出經費의 取得者의 反應에 左右된다. 高額所得層이 많이 負擔하는 租稅일수록 貯蓄을 減少시킨다. 이에 反하여 低額所得層이 負擔하는 租稅는 대개 消費支出을 削減하게 된다. 消費稅는 特히 暫定的인 것일 때에는, 消費를 抑制하게 한다. 또 政府의 經費支出도 低額所得層에 支出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消費性向을 引上할 可能性이 많다.

消費性向의 增大는 물론 擴張的 效果를 가진다. 租稅로 인한 民間의 消費支出의 減少는 政府支出의 增加보다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租稅는 그 一部가 貯蓄에서 徵收되기 때문에 消費의 減少는 租稅收入보다 작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總支出에 대한 租稅·經費의 綜合的 效果는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에서 오는 投資의 變動에 左右된다. 만일 投資支出이 純貯蓄의 減少와 同額의 減少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消費性向의 增大에도 不拘하고 總支出에는 變動이 없다. 그러나 投資의 減少가 貯蓄의 減少보다 작으면 總支出과 GNP는 增加하고 反對로 投資의 減少가 貯蓄의 減少보다 클 것 같으면 總需要는 減少할 것이다.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이 投資에 미치는 效果는 複雜하다. 投資는 現在의 消費量에도

依存하기 때문에 消費性向의 上昇은 投資水準을 維持乃至는 上昇까지도 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租稅는 企業으로부터 擴張에 필요한 資金을 吸收하여 投資를 곤란하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累進課稅는 企業者의 投資意欲과 個人的 企業에 대한 資本의 供給을 鈍化시킬 수도 있다. 政府의 租稅收入에 의한 支出은 물론 企業의 投資資金을 回復할 수 있게도 하지만 만일 自己資本으로만 擴張될 수 있는 企業이 租稅를 負擔한다면 企業의 決定이 租稅에 의하여 크게 影響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投資를 抑制하는 效果도 나타날런지 모른다.

租稅에 의한 經費支出은 또 다른 經路를 통해서도 投資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어떤 種類의 政府活動은 民間投資를 有利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政府가 租稅收入을 民間企業과 競合한 企業을 設立하기 위하여 支出할 것 같으면 民間企業은 販路의 縮少 및 政府와의 競爭의 危險 등으로 말미암아 投資를 크게 減少시키게 될 것이다. 民間投資에 대한 正確한 效果도 消費·貯蓄의 比率에 대한 效果와 마찬가지로 租稅의 種類·經費支出의 目的과 그리고 租稅 및 經費支出에 대한 國民들의 心理的 反應에 左右될 것이다. 累進率이 높은 所得稅는 特히 投資를 抑制하는 效果를 갖기 쉽고 販賣稅 또는 消費稅는 投資에 대하여 直接的인 效果는 거의 없지만 消費의 減少를 통한 間接的인 投資削減의 效果를 가진다. 要컨대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의 綜合的인 效果는 擴張的이라고 할 수 있다. 租稅는 消費性向을 增加시키는 한편 投資資金 및 投資誘因을 減少시키지만 消費와 政府支出의 合計는 增加하여 오히려 投資를 增加시킨다. 投資에 대한 租稅의 影響이 몹시 크지 않은 以上 政府支出과 消費의 合計의 增加를 投資의 減少가 相殺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總支出은 增加하고 GNP水準은 上昇할 것이다. 물론 完全雇傭下에서는 貨幣 GNP水準이 上昇하고 不完全雇傭下에서는 實質 GNP와 貨幣 GNP水準 모두가 上昇한다.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은 또 다른 經路를 통해서도 GNP의 水準에 影響을 미친다. 增稅는 完全雇傭下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不完全雇傭下에서도 때로는 生産要素의 價格을 引上시킨다. 生産要素의 所有者들은 租稅負擔을 相殺함으로써 自身들의 實質所得을 維持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勞動의 경우 強力한 勞動組合은 增稅가 있을 때에는 貨幣賃金の 引上을 통하여 實質賃金の 維持를 達成할 수 있을런지도 모른다. 消費稅는 특히 生計費引上이라는 直接的인 效果를 가지기 때문에 賃金の 引上을 招來하는 傾向이 크다. 個人所得稅가 重課될 것 같으면 可處分所得이 減少하기 때문에 消費稅가 引上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賃金引上의 要求를 發生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全般的인 賃金の 上昇은 一般物價

水準을 引上하게 되고 따라서 GNP水準을 引上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完全雇傭下에서는 貨幣GNP만을 引上하여 인플레이션이 進行될 것이고 不完全雇傭下에서는 貨幣GNP의 增加와 同時에 實質GNP의 增加를 가져올 것이다.

VII. 公債發行과 經費支出의 綜合的 效果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公債收入은 個人에 의하여 調達될 때에는 收縮的이고, 銀行에 의하여 調達될 때에는 擴張的이다. 그러나 公債收入으로 經費를 支出할 때에는 그것이 個人에게 賣却되었거나 銀行에 賣却되었거나 擴張的 效果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擴張的 效果의 程度는 經費가 租稅에 의할 때보다도 클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租稅에 의한 經費支出 즉 均衡豫算에 의한 經費支出이거나, 公債收入에 의한 經費支出 즉 赤字豫算에 의한 支出이거나, 經費支出이라는 것이 정도의 差異는 있어도 擴張的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公債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의 效果를 所得分配, 資源配分 즉 GNP의 構成 및 GNP의 水準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檢討하기로 한다.

먼저 所得分配에 대한 效果를 볼 것 같으면 公債에 의한 經費支出은 (完全雇傭下에서의 價格上昇의 경우를 除外하고) 公債購入者의 實質所得을 減少시키지 않고 經費支出에 利益을 얻는 사람들의 實質所得을 增加시킨다. 經費支出의 對象은 主로 低額所得層일 것이고, 公債의 發行은 納稅의 負擔을 增大시킬 것이므로 公債에 의한 經費支出은 實質所得의 分配를 均等化하는 傾向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公債가 償還될 때에는 租稅에 의한 經費支出과 마찬가지로의 結果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疑問이 나올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理由에 의해서 반드시 正當한 見解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첫째로는 經費가 支出될 때와 公債가 償還될 때에 있어서는 租稅制度가 반드시 같지 않다는 事實이다. 둘째로는 利子支給이 納稅者로부터 公債保有者로의 實質所得의 移轉이 된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公債의 發行 및 償還에서 오는 所得의 再分配는 어떤 사람이 公債를 所有하고 있고, 納稅義務가 어떻게 配分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資源配分 즉 GNP의 構成에 미치는 效果를 볼 것 같으면 公債의 發行 自體는 資源配分에 대해서는 租稅賦課에 있어서와 같이 큰 影響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公債가 企業의 投資를 削減하는 範圍內에서는 總產出物에 있어서의 資本財產出의 比率을 떨어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比率의 低落은 產業에 따라 다를 것이며, 따라서 各種 資本財 및 消費財의 生産比率를 變更시킬 것이다. 또 公債에 의하여 調達된 經費의 支出이 資源配분에 미

치는 影響은 租稅에 의하여 調達된 經費支出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다.

다음에 끝으로 GNP에 미치는 影響을 볼 것 같으면, 公債收入에 의한 經費의 支出이 消費, 投資 따라서 또 GNP에 미치는 影響은 租稅收入에 의한 經費支出의 그것과 同一하지 않다. 이 問題를 考察하기 위해서는 公債의 性格을 잠깐 考察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公債는 그 本質上 政府에 대한 公債所有者의 債權이므로 所有者의 立場에서는 그것은 自身の 富를 形成한다. 그러나 社會全體의 立場에서는 富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公債의 債務者는 政府이지만 政府는 그 債務를 結局 租稅에 의하여 辨濟해야 할 것이므로 公債의 終局的인 債務者는 納稅者라고 할 수 있고 公債所有者의 債權과 納稅者의 債務는 社會全體로 볼 것 같으면 相殺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債가 國內에서 保有되고 있는 限 國家의 實質的인 富는 公債의 發行에 의하여 增加도 減少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公債가 外國人에 의하여 保有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은 內國人에 대한 外國人의 債權이 된다. 이 債權 및 그 利子의 支給을 위해서는 從前보다도 輸出超過額이 增加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完全屬下에서는 國內의 生活水準을 引下하게 된다.

만일 內國債가 發行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支出될 經費는 租稅徵收에 의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公債의 形態를 가진 個人的 富는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즉 公債 대신 아무 價値도 없는 納稅의 領收證을 保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公債에 의한 經費支出과 租稅에 의한 經費支出의 差異, 즉 赤字財政과 均衡財政의 差異는 經費調達方法에 있는 것이 아니고 現行租稅 外에 公債를 發行해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政府經費額과 公債發行이 필요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政府經費額의 差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公債가 國民經濟에 대해서 아무런 影響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以上과 같은 性格을 가진 公債가 GNP의 水準에 미치는 影響을 보기 위하여 GNP의 決定要因인 總需要에 대한 公債의 影響을 보는 것도 하나의 接近方法이다. 이 方法에 의하여 總需要의 構成要素인 消費와 投資에 대한 影響을 보고, 다음에 投資의 決定要因의 하나인 利子率에 대한 影響을 보기로 한다.

먼저 公債에 의한 經費支出이 消費支出에 미치는 影響을 볼 것 같으면, 公債의 所有者는 이미 본 바와 같이 그것을 自己 個人的 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租稅로 經費가 調達될 때보다도 民間의 消費支出의 比率는 높아지는 傾向이 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所得 以上の 消費를 刺戟하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公債의 一般의 效果는 消費率의 引上과 이에 따르는 GNP水準의 引上일 것이다.

다음에 投資에 미치는 影響을 볼 것 같으면, 企業活動을 擴張 또는 시작하려는 企業 또

는 個人이 公債를 所有하고 있을 때에는 企業의 運營 또는 擴張을 위한 資金을 쉽사리 얻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政府가 公債를 發行했을 경우에는 政府는 利子率의 引上을 願하지 않게 될 것이며, 대개는 오히려 從前보다도 利子率을 引下하게 된다. 따라서 投資가 增加할 可能性이 있다. 그러나 만일 公債의 存在가 政府의 信用狀態의 將來에 대한 危懼心을 國民에게 준다고 할 것 같으면, 企業은 一般的으로 長期投資는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다음에 公債에 의한 經費支出이 流動性에 미치는 影響을 볼 것 같으면, 그것은 租稅에 의한 經費支出 보다도 個人的 富를 增加시킬 뿐 아니라 個人的 流動的 資産의 比率를 增加시킨다. 여기서 流動的 資産이라는 것은 큰 損失없이 언제나 現金으로 轉換될 수 있는 資産을 말한다. 이와 같이 公債는 流動資産의 比率를 增加시키기 때문에 個人은 其他의 形態로 富를 所有하고 있을 때보다도 支出을 빨리 增加시킬 수 있다.

또 銀行이 巨額의 公債를 保有하고 있을 때에는 銀行은 언제나 公債의 賣却에 의하여 準備金을 增加시킬 수 있고, 따라서 또 市中銀行은 中央銀行의 信用量을 制限하기 위한 信用統制의 效果를 相殺할 수도 있다. 물론 公債價格이 額面以下로 떨어질 때에는 이러한 效果는 制限될 것이다. 그러나 政府는 利子負擔 때문에 公債價格의 引下를 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끝으로 利子負擔을 통한 效果를 볼 것 같으면 公債는 政府로 하여금 利子를 負擔하게 하므로 政府는 利子支給을 위하여 租稅를 增加하지 않으면 안된다. 租稅를 增收하여 行하는 利子支給은 所得의 再分配를 가져올 것이다. 왜냐하면 納稅者와 公債所有者는 반드시 一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租稅增收과 利子支給이 國民經濟에 대해 擴張의 效果를 가지느냐 또는 收縮的 效果를 가지느냐 하는 것은 納稅者의 消費性向과 公債所有者의 消費性向의 相對的 狀態에 依存하는 同時에 또 그 租稅가 投資에 미치는 影響이 依存한다. 公債의 大部分은 高額所得者層에 의하여 保有되고 있으므로 公債의 利子支給은 租稅徵收에 의한 다른 經費의 支出보다도 非擴張的이고 때로는 收縮的일 수도 있다. 全體의으로 보아서 內國債에 대한 利子負擔은 經濟發展의 見地에서는 이를 抑制하는 結果를 가져오기가 쉽다.

만일 利子が 外債의 所有者에게 支給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것은 輸出品에 대한 要求權이 될 것이므로 輸出을 增加시키고 輸入을 減少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外債의 利子支給은 擴張的이고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進行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더 惡化시키고 沈滯下에서는 景氣를 回復시키는 要因이 될 것이다.